

대학생을 위한 올바른 글쓰기 전략

심영덕*

- I. 들어가는 글
- II. 주문식 교육과 글쓰기 실태
- III. 계열별 글쓰기의 과학적 이해
- IV. 새로운 정보탐색과 개인 가치의 상승
- V. 나가는 글

【요약】

현대 사회는 정보화 사회다. 지금까지 인류는 농업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발전을 거듭했다. 여기서 ‘정보사회’라 하면 컴퓨터를 통한 정보의 처리나 가공, 흐름만을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것에는 정보의 생산이라는 측면도 있다. 이런 정보들이 고급의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데 그들 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글쓰기이다.

글쓰기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학은 물론이고 초·중·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글쓰기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 나타내는 표현과정이라는 점에서

* 영남대학교 국문과 강사

개인적 행위이지만 글쓴이와 독자 사이의 사회적 의사소통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행위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것은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지적활동에 해당된다.

글을 쓴다는 것은 곧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한 방법이다. 이 말은 곧 아무런 생각 없이 글을 쓸 수 없다는 사실을 역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고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 말하기와 글쓰기이다. 그런데 말하기를 할 때는 정확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것은 바로 글쓰기를 통해서 길러질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무슨 연관이 있겠느냐는 의문이 생기겠지만 상호소통은 필연적이다. 생각을 올바르게 정리하지 못하면 말은 질서가 없어진다. 그리고 그 핵심마저 빠질 확률이 높다. 결국 생각을 정확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글쓰기가 뒤따라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런 입장에서 대학생 글쓰기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 보았다. 어떤 논리적인 글을 쓰는 법을 배우는 일은 그 주제에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다. 모든 학문은 그 지식을 이용하는 고유한 방식이 있고, 학문마다 글쓰기 방식도 다르다. 이렇게 볼 때 글쓰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양 있는 지식인으로서의 삶을 완성하는데 있다. 참된 지식인이란 전문 지식을 인생 전반에 연결시켜 보편타당한 가치로 말을 하거나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I. 들어가는 글

문명화되고 분화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과연 글쓰기란 무엇인가. 우리는 영상시대가 도래했다고 해서 글쓰기를 한 쪽으로 밀어 놓고 단지 구시대의 유물처럼 바라보기만 할 수 없다. 초등학교 혹은 그 이전부터 우리는 글쓰기 연습을 해왔다. 받아쓰

기든 작문이든 간에 그와 유사한 시간을 많이 경험했다. 그럼에도 자신 있게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힘 들어 한다.

요즘 대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한 세대이다. 이런 매체와 관련된 글쓰기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도, 맞춤법이 틀려도 큰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오히려 신조어나 유행어를 만들어내며 자기들만의 세계를 확고히 하고 있는 상태이다. 바꾸어 말하면 각종 프로그램이 개발되면서 띄어쓰기나 맞춤법을 자동으로 해 주었기에 그냥 프로그램에 자신을 맡겨 버리면 그만이다. 이런 과정에서 간단한 사고 한번 했을 리 없다. 문제는 이러한 시각적인 영상매체에 대한 몰입이나 탐닉은 인간을 수동적으로 만들어 정신적으로 피로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이런 상태에 놓인 인간은 자극적인 것만을 추구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멀티미디어 영상매체 시대에 인간이 능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책읽기와 글쓰기일 것이다. 이런 이유가 아니라도 최근 대학들은 물론 일반 사회에서도 글쓰기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교육환경에 의해 글쓰기의 필요성이 대학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다는 점도 그 한몫을 한다. 이것은 자기를 표현하는 적극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지식을 전달하고 생산하는 데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는 인식의 팽배이기도 하다. 결국 대학생활에서 학업의 성과나 학문적 연구의 업적은 글쓰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사회생활에서도 중요한 문서나 서류도 이것과 밀접하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고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 말하기(의사소통)와 글쓰기이다. 먼저 말하기를 할 때는 정확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것은 바로 글쓰기를 통해서 길러질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무슨 연관이 있겠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지만 상호소통은 필연적이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글을 쓰는 것은 아주 다양한

경험이 된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이나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습관화된 시각에 따라 글을 써나간다. 그 때문에 글을 쓰는 과정이 개인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¹⁾

최근 대학에서 붓물처럼 일어나고 있는 글쓰기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는 다양하나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학문연구의 기초가 된다는 점이다. 학문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을 거친 얕은 지식이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결과물이다. 여기에서 논리적이고 질서 있는 글쓰기는 빛을 발한다. 둘째 성공을 위한 지름길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영상시대에 발맞춰 단지 모든 것이 시각적인 것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그것들이 후대에 남겨지기 위해서는 문서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이유로 직장에서의 올바른 글쓰기는 개인의 문제를 떠나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셋째는 커뮤니케이션과 자기 표현의 수단이라는 점이다. 커뮤니케이션은 우리 삶 전체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인간의 생활이나 역사를 직접 기록해 전달하게 함으로써 인류의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²⁾ 대학생의 경우 자기 표현이란 입학 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제물, 시험, 보고서, 자기소개서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이런 글쓰기가 전문적인 지식과 교양만이 아니라 인격까지도 드러낸다는 점을 안다면 이를 소홀히 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면에서 글쓰기는 끊임없는 작업을 요구한다. 본 글에서는 이런 흐름 속에서 대학생들의 글쓰기 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지를 먼저 살핀다. 이후 계열별로 교양과 직업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며, 여기에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본다. 그리고 장을 달리하여 개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의식의 전환에 대해 살필 것이다.

1) 김동희 옮김, 『교양이 되기 위한 즐거운 글쓰기』, 들녘(2004), 16쪽.

2) 조재승 외, 『글쓰기와 자기 표현』, 한신대학교출판부(2005), 11쪽.

II. 주문식 교육과 글쓰기 실태

학생들이 대학을 들어오기 전에 글쓰기 연습을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은 고등학교 작문시간이다. 하지만 이 시간은 교과서도 있고, 시간표상에도 잡혀 있는 것이지만 수업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입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교육과정에서 작문시간은 ‘언어 영역’ 시간으로 대체된 지 오래다. 이것은 대부분의 고등학교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대학에 들어오기 전 학생들은 어떤 기회에 글을 써보는 것일까. 아마 수능시험이 끝나고 난 뒤 논술시험을 위해 한 달 이내에 대학교의 입시경향에 맞춰 급조된 형식으로 써보는 것이 전부일 것이다. 그러다 보니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은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서술을 요구했지만 정작 학생들의 글을 일정한 틀 속에서 만들어낸 복제품처럼 획일적이다. 짧은 시간에 배울 수 있는 것은 주문식 교육의 전형인 단순한 요령일 뿐이다.

여기서 외국의 경우를 살펴볼 필요성이 생긴다. 동일한 글쓰기 형식은 아닐지라도 학생들의 사고를 최대화시켜 그들의 작문실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나라로 프랑스를 꼽는다. 이 나라에서는 ‘바칼로레아’라 불리는 대학입학 자격시험을 치른다. 이 시험은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교등전문학교고등기술 전문학교에 진학하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리세, 칼리지와 같은 중등교육의 후기과정 3학년 말에 실시한다. 우리처럼 하루에 치러지는 것은 아니고 이틀에 걸쳐 실시된다. 단편적인 지식을 묻는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 바로 이것이 바칼로레아라는 논술시험이다. 어렸을 때부터 사고의 힘을 바탕으로 철학적 논리 교육을 받아온 프랑스 학생들에게 이런 시험은 특별한 시험이 아니다. 우리 유형과 어떻게 다른지를 알기 위해 2005년도 문제를 인문계·사회계·자연계로 나누어 하나씩 그 해결방안과 함께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문계 문제는 “정의나 부정의냐는 관습적으로 구별될 뿐인가.”라는 물음이다. 이것은 정의와 부정의 문제는 관습과 도덕이라는 의식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구조문제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경우이다. 심각한 불평등은 사회 갈등을 초래한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삶의 질을 높일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사회 정의는 없다는 것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의 고등학교 수준에서 풀어내기엔 상당히 벅찬 문제로 보인다. 현재 한국 사회의 양극화 문제도 그런 측면에서 사회 정의에 어긋난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은 존 롤스의 「정의론」에 잘 나와 있다. 덧붙여 피에르 부르디외가 말한 문화권력으로서 아비투스 개념도 알아야 그 본질을 설명할 수 있는 문제이다.

다음 사회계열 문제는 “인간은 기술(技術)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이다. 이것은 문명의 발달로 생성된 산물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기술결정론을 주장했다. 엘빈 토플러의 저서 『제3의 물결』에 보면 농업 혁명, 산업 혁명, 정보화 혁명으로 이어지는 과학기술문명은 인간의 행복과 편리를 도모한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원리나 줄기세포 연구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기술결정론은 사회적 변수를 고려하지 않아 문제를 일으킨다.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과학기술문명은 환경을 파괴한다. 게다가 핵무기를 비롯한 첨단무기는 인류를 살상하는 도덕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하이젠베르크의 『부분과 전체』에서 주장하듯이 과학자라도 전체를 알고 자신이 연구하는 부분에 충실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자연계 1번 문제는 “자유롭다는 것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다는 뜻인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것은 먼저 자유와 자율을 구별해야 한다. 자유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자율이다. 개인

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허용되면 공동체의 개인들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 홉스는 저서 『리바이어던』에서 국가라는 괴물(리바이어던)을 통해 만인과 만인의 투쟁 상태를 조정한다고 했다.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되면 이기주의가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법과 도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술해야 한다.

문제 2는 “예술작품에 대한 감수성은 훈련을 필요로 하는가.”이다. 이것은 예술작품에 대한 감수성을 위한 사전 지식을 필요로 한다.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인식론으로서 귀납과 연역, 경험과 합리, 이론과 실천, 앎과 삶 등이 모두 모두 여기서 출발한다.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보면 사랑이란 서로 알아가면서 이해가 깊어진다고 했다. 문화예술도 사전 지식이 있으면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으로써 만족감은 훨씬 높아진다. 특히 고급문화는 사전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여야 하는 문제이다.

고등학교 시절에 보다 종합적인 사고의 훈련과 체계적인 글쓰기 학습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이런 논제를 풀어내기란 어려워 보인다. 현재의 교육 연장선상에 있는 대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고와 표현’, ‘가치와 논리’, 주체와 창의성’ 등이 연습이 요청된다.³⁾ 타인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선 타당하고 객관적인 논리와 추론과정을 통해 자신의 주장이 진실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독창적인 주장을 펼치고 그 주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비판적·논리적 사유도 함께 따라야 한다.

도저히 써내려 갈 엄두조차 나지 않았고, 그저 글을 쓴다는 자체가 두려웠다. 우리 모두는 글에 대해 지나친 두려움을 갖고 있을 뿐만 아

3) 교재편찬위원회 편, 『창의적 사고와 글쓰기』, 부산대학교 출판부(2005), 52쪽.

나라 글쓰기에 대한 기초도 부족하다. 독서량이 충분하지 않은데 기초가 제대로 잡혀 있을 리가 없다. 제대로 된 글쓰기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의 부재와 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기초 부족이 우리가 글을 쓰는 행위에 있어서 서투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다.⁴⁾

학생들의 글쓰기는 모든 정보를 책보다 인터넷에서 얻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라면 그 능력 향상이 퇴보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기계의 편리함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다. 인터넷을 통해 우리는 정보를 쉽게 얻는다. 그러나 그것이 참 정보인가 거짓 정보인가에 대한 검증은 미약하다.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의 사고력이 바닥을 치는 상태에서 참된 것을 찾기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고등학교부터 벼락치기식 논술대비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꾸준한 실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입시정책을 전면적으로 고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이 이렇다면 그 대안을 대학과정에서 찾을 수밖에는 없다.

대학은 유능한 인재 양성 기능과 함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유용한 지식을 생산하여 사회에 제공해 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 학문적 공동체에서는 우선적으로 새로운 문제를 탐구하고 논리화하여 그것을 보고서나 논문의 형식으로 엮어낼 수 있는 글쓰기 능력을 요구한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인생을 창의력으로 키워주는 것 즉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글쓰기도 예외일 수 없다. 이 능력은 새롭게 익힌 지식을 자기화하고 그 타당성을 입증하는 일체의 것을 포괄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말은 곧잘 하는데, 생각을 글로 정확하게 표현하질 못합니다. 대부분의 학생이 단문은 비교적 잘 쓰는 데 복합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복문을 쓰게 되면 주술관계가 흐트러져 버린다. 맞춤법도 틀리고 띄어쓰

4) 김해식, 『글쓰기 소프트』, 새길(1993), 18쪽.

기도 엉망이어서 읽다보면 한숨이 나오는 리포트도 적지 않다.)

글쓰기는 단어를 하나씩 하나씩 배열하여 벽돌처럼 쌓아올리는 수공업이다. 그것은 오랫동안 고생스럽게 맘을 흘려야 하는 노동이다. 번역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십중팔구는 번역을 잘 못한다. 엉터리로 하니까 번역이 쉽다고 오해할 따름이지, 문학 작품을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옮기는 일이 도대체 쉬울 까닭이 없다. 글쓰기도 마찬가지이다.⁵⁾

우리가 말하기는 쉬운데 글쓰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은 단지 말이 아닌 글로써 표현함으로써 말로 표현했을 때의 보조적인 역할(표정이나 행동)을 해 주던 것들이 배제된 채 오직 글로만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글을 쓸 때는 자유롭게 말하듯이 그것을 글로 써내려 가는 것이 요구된다.

이것은 교양과목인 글쓰기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근래 대학생들의 글쓰기 양상이다. 문장력을 키우면 독서 능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생각하는 힘’도 기를 수 있음을 사이토 다카시의 주장⁶⁾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글쓰기 공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자명하다. 바로 글을 제대로 읽는 능력과 더불어 제대로 사고하는 힘을 기르기 위함이다.

한편 대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 글쓰기는 공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어떤 주제에 대해 글을 쓰는 법을 배우는 일은 그 주제에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법을 배우는 법과 같다. 모든 학문은 그 지식을 체계화하는 고유한 방식이 있고, 학문마다 글쓰기 방식도 다르다.⁸⁾ 다시 말해 글쓰기도 해당 학문의 한 부분이며 그렇기 때문

5) 국어교육위원회, 『글쓰기와 삶』, 연세대출판부(1992), 20쪽.

6) 안정효, 『안정효의 글쓰기 만보』, 모멘트(2006), 498쪽.

7) 사이토 다카시, 『원고지 10장을 쓰는 힘』, 루비박스(2005), 10쪽.

에 당연히 글쓰는 법을 배워야 한다.

오늘날의 대학생들에게 교양(글쓰기) 교육이 부실한 원인이 무엇인가. 먼저 큰 줄기를 지적하자면 잦은 교육과정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대학의 벤치에 모여 있는 학생들의 대화에서 학문과 이상을 찾는 것도 드물뿐더러 도서관에서 서적을 탐독하는 학생의 모습도 흔하지 않다. 다들 무엇을 생산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저 소비만 하고 있는 모습이다.⁹⁾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중등학교나 대학의 글쓰기 교육의 관심 확대는 바람직하다. 물론 이론도 있다. 형식적인 교양과목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능력을 키워주는 진정한 교양이라는 호평에 맞서 인문학의 퇴조와 학문의 기술기능화를 부추기는 것이라는 비판이 엇갈린다. 고전과 읽기 교육을 반복했을 뿐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했던 기존의 대학국어 교재가 새로운 교과서로 대체되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일 수 있다. 하지만 자칫 폭넓은 정신적 교육보다는 기업체가 좋아할 실용도구적인 측면만 남을지도 모르는 문제도 함께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제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글쓰기와 정면으로 마주치는 시기는 과제물 작성 때이다. 학생들은 주제가 주어지고 과제를 하기까지 어떻게 써야할 지를 고민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글쓰기가 어렵다는 선입견과 글은 어렵게 써야 한다는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음은 물론이다.¹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문장이나 글의 흐름은 처음부터 뒤틀려서 시작되고 급기야는 결론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글이 어려워야 한다는 생각이 근본적인 이유로 작용한 것이다.

8) 강주현 옮김, 『작문 신공』, 효형출판(2006), 12쪽.

9) 김재만, 『지식인 그들은 다 어디 있는가』, 푸른사상사(2001), 159쪽.

10) 황소용, 『바른 글 좋은 글』, 랜덤하우스중앙(2005), 15쪽.

그동안 학생들의 과제물에서 드러났던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 보자.

<어휘의 사용의 부적절성>

- ▷ 여기 웬 일이냐?(어찌 된, 어떠한의 경우라면 → 웬)
- ▷ 내노라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내로라하는)
- ▷ 친구를 만날 생각에 마음이 무척이나 설레인다.(기본형이 ‘설레다’ → 설렌다)
- ▷ 안개가 거치자 건물 사이로 하늘이 보였다.(→건히자)
- ▷ 그동안 밀렸던 외상값을 한꺼번에 치뤘다.(→치렀다)
- ▷ 아버지는 동생의 우수 소식을 학교에게 알렸다.(→무정명사에는 ‘-에’를 사용함)
- ▷ 영남은 교수님의 심부름을 빌미로 영숙을 보러 왔다.(‘재앙이나 탈 따위가 생기는 원인’은 아님→ 구실)

<외래어 표현과 문법적 지식의 결여>

- ▷ 그에게 있어 이번 시험은 인생을 뒤바꿀 커다란 계기가 될 것이다.(→그에게)
- ▷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보인다)
- ▷ 대학생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연예인에게 관심이 많다)

<호응 불일치나 필수 성분의 생략>

- ▷ 사람은 누구나 추구한다.(목적어 생략 → ‘누구나’ 뒤에 ‘행복을’ 추가)
- ▷ 언니는 생일선물로 나에게 가발을,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CD를 주었다.(주어 생략 →‘내가’ 앞에 ‘친구들을’ 추가)
- ▷ 비가 많이 오니 우산과 우비를 입고 나가라.(서술어 생략→

‘우산과’를 ‘우산을 쓰고’로 고침)

- ▷ 발전과 진보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지만, 또한 많은 것을 잃었다.(→잃게 만들었다)
- ▷ 이 공원은 주민 공동의 재산이므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을 금합니다.(→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여기에 적혀 있는 일이 오늘 네가 다 끝내야 한다.(→주어 ‘일이’와 서술어 ‘끝내야 한다’의 호응 불일치)

<사동과 피동 표현의 혼용>

- ▷ 안경을 쓰자 멀리 있는 간판이 보여졌다.(→보였다)
- ▷ 교수님의 도움으로 우리 동아리의 꿈이 실현되어졌다.(→실현되었다)
- ▷ 마을회관에서는 무료로 다양한 기술을 교육시켜 준다.(→교육해 준다)

이 외에도 단락 구분의 결여, 문체상의 문제 등이 많이 나타난다. 그나마 이 경우는 한글맞춤법과 관련된 것들에 한정된다. 위에서 언급한 경우가 아니라도 기초적인 사항들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은 상태이다. 현재의 대학생들은 초등학교 시절 이전부터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다뤘던 세대이다. 그러나 정작 우리말과 관련된 어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다.

이런 이유로 근래의 ‘글쓰기’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어느 대학의 경우 예전의 국어과목에 비해 학생들의 만족도가 1.7배로 상승했다는 통계자료도 보인다. 대학생의 경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포함해서 보고서 작성, 학위 논문 작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글쓰기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사회에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내밀어야 하는 것이 자기소개서인데 이것 또한 글쓰기와 무관하지 않다. 사회에 취업

이후에는 사업계획서의 작성에서부터 영업전략 보고서의 작성 또한 마찬가지이다.

한동안 인문학 위기의 극복 방안으로 “쉬운 글쓰기로 대중에게 다가가자”는 분위기가 학자들 사이에 조성됐으나 일시적인 구호에 그친 느낌이다. 대중문화 시대가 도래하고, 사이버 공간이 새로운 글쓰기의 장으로 등장하면서 학자들의 고답적 글쓰기는 이제 그들만의 지적 사교클럽에서만 통용되는, 해독 불가능한 암호로 전략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다.

어느 신문에 소개된 다음 글을 보자. “확률표집 방법의 논리는 모집단의 개별구성요소가 표본에 포함될 확률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확률표집을 위해서는 모집단의 규모와 성격이 정확히 규명되어야 하는데 개별요소들의 추출확률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필요치 않거나 또는 불가능할 경우에는 비확률표집의 방법을 쓰게 된다.”

첫문장부터 주어 서술어는 물론이고, 품사조차 알 수 없는 난잡한 글이 적당히 문장을 은폐하고 있다. 솔직히 아무리 좋은 글이라도 대중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은 단순한 암호에 불과할 뿐이다. 마치 의사들이 영어 처방전을 고집하면서 대중들이 접근할 수 없는 성벽을 쌓아 자기 세계를 방어하듯, 학자들도 애매모호한 암호의 세계에 안주하며 외부의 비판을 사전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학자들의 글쓰기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이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외국이론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빼놓을 수 없다. 시대는 변하고 있다. 예전처럼 외국의 어설픈 논리가 자신의 지식을 포장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러기에 대학생은 이런 경우에서 벗어나 자신의 지식을 쉬운 글로써 표출해야 한다. 또한 글로써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켜야 하는데 이런 면에서 올바른 글쓰기란 필수불가결한 활동일 것이다.

Ⅲ. 계열별 글쓰기의 과학적 이해

글쓰기는 사고의 결과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다. 결국 이것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산물이다. 여기서 글을 쓴다는 것은 자신이 사고하는 내용을 문장화시키는 작업이다. 그런데 글쓰기의 욕구 중에서 가장 원초적인 것은 글쓰기를 통한 자아 표출이다.¹¹⁾ 인간은 자아와 세계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지 않을 수 없다. 이 대립과 갈등은 이미지의 형태로 인간의 의식 속에 자리 잡는다.

그 대립과 갈등의 표출을 위한 곳곳에 글쓰기가 있다. 누군가를 향한 의식이 가장 많이 바깥으로 향하는 하나의 예로 잡지나 신문에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서평의 한 경우를 보자. 비판적 활동에 해당하는 서평은 시대가 흐를수록 중요시되는 추세다. 사설이나 칼럼이 그 영역과 별반 다를 것이 없지만 분명 장르는 다르다.

딱딱한 제목의, 이 정도의 두툼한 책을 한 나절 만에 독파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주제를 이해하기 쉽게 소개해 주는 필자들의 전문적인 식견과 글쓰기 덕분이다. 잘 알아야 쉽게 쓸 수 있거니와, 특히 필자들의 각별한 글솜씨는 이제 우리의 학문도 내용은 어떨지 몰라도 담론에서는 완전히 주권을 회복했음을 보여준다.¹²⁾

그러나 시대도 변하고 있다.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이다. 이런 가운데 지면을 통하든 전자 매체를 통하든 하루하루의 역사가 기록되는 신문 활용의 방법도 이 계열의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예전과는 달리 각각의 면들이 세분화되고, 기자들이 전문화가 이루어지면서 정보의 양은 그만큼 다양하고 방대해졌다.

11) 이지호, 『글쓰기와 글쓰기 교육』, 서울대출판부(2001), 221쪽.

12) 최갑수, 「현대학문의 성격」 서평, <조선일보> 2000.6.10.

이것들은 곧 배경지식이나 글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들은 신문을 지식정보사회의 원천으로 생각한다. 존 나이스비트는 “미래를 덮고 있는 커튼을 걷어내는 데 가장 필요한 지식의 원천은 신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미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언제나 과거와 현재에 내재돼 있고, 그 둘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도구가 바로 신문이라는 말이다. 앨빈 토플러는 『부의 미래』에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쓸모없는 지식’을 걸러내는 능력이 미래의 부(富)를 결정짓는 핵심요소가 될 것이라 말한다.

정보 과잉에 따른 정보혼란은 결국 정보부재로 이어지기에, 엄선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신문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토플러는 최근 국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신문을 세계가 돌아가는 소식과 새로운 지식이 넘치는 ‘지식과 정보의 보고(寶庫)’라고 규정하고, 세계의 신문 6~7종을 살살이 읽는 것으로 매일 아침 일과를 시작한다고 했다. 한편 일본의 초지성(超知性)인 다치바나 다카시는 『도쿄대생은 바보가 되었는가?』에서 일본 대학생들의 수준 저하를 우려한다. 전문 분야의 높은 지식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수준 높은 교양인을 키우는 것이 고등교육의 목표이고, 그 척도 중 하나가 고급 일간지의 내용을 다 이해하는 능력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개탄한다. 사정이 이렇진대 미래를 책임질 우리 젊은 세대가 신문을 멀리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¹³⁾

흑자들은 TV의 발전 이후 영화관이 사양세에 빠지고, 앞으로 없어질 것이라 예측됐다. 그러나 영화산업은 살아남았고 오히려 번성하고 있다. 시청각 효과를 극한으로 발전시키고 영화관을 고급화다양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기를 타개해 나갔다. 방안에서

13) 강규형, 「토플러가 매일 아침 신문 6~7개 읽는 이유」, <조선일보> 2007.4.

TV를 보는 것보다 영화관에서 보는 것이 더 높은 차원의 감흥을 줬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신문도 영화의 경우처럼 인터넷과 같은 뉴미디어의 도전에 창조적으로 대응하면서 차별화와 고급화를 해야 함은 당연하다.

이제 인문계열의 글을 바탕으로 하여 글쓰기가 어떤 방식으로 글의 틀을 만들어 가는 지를 간단히 알아보자. 이것은 글의 요지를 파악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제시된 글의 요지를 정확히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은 본인의 글 또한 그렇게 쓸 수 있음을 뜻한다. 먼저 이어지는 글은 글쓰기가 부머의 견해를 빌려와서 인간이 다른 인간과 맺는 관계를 나와 너의 관계, 나와 그것의 관계로 설명한다. ‘나와 너의 관계’란 상호 인격 전체를 통하여 다른 무엇과 대체될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한 것을 말하고, ‘나와 그것의 관계’란 하나의 기능인으로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과 대체될 수 있는 관계를 보여준다.

‘나’를 발견한다는 것은 다른 것과의 관계에서 비로소 가능하다. 부머가 그의 책 ‘나와 너’에서 시적으로 표현하였거니와 ‘너’ 혹은 ‘그것’이 없이는 ‘나’가 있을 수 없다. 그는 ‘나’가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관계는 둘이 있는데, 그 하나는 ‘나’와 ‘너’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나’와 ‘그것’의 관계라 하였다.

그런데 이 관계에서 ‘나’는 동일하게 남아있고, 다만 그 상대 즉 ‘너’와 ‘그것’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가질 때의 ‘나’와 ‘그것’과의 관계를 가질 때의 ‘나’는 서로 다른 ‘나’라 하였다. 이것은 ‘나’가 어떤 불변하는 실체로서 어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맺는 관계에 따라 바뀌어 지는 특별한 존재임을 보여준다.

‘나’의 그 두 가지 존재 방식 가운데 진정 전체적인 인격체로서의 충만한 ‘나’는 ‘너’와 관계를 가질 때의 ‘나’라고 할 수 있다. ‘그것’과 관계를 가질 때 즉 돈 그 사람 등 3인칭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과 관계를 맺는 주체는 ‘나’의 일부뿐이요 나의 전체는 아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 비인격적인 관계를 맺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단

순히 하나의 기능인으로서 다른 사람과 어떤 일을 처리했을 때 그때의 나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과 대체될 수 있으며 그 사람은 비록 사람이지만 나에게 하나의 ‘너’가 될 수 없고 오히려 하나의 ‘그것’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너’와의 관계에 있는 ‘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 때의 ‘나’는 인격 전체이며 다른 무엇과 대체될 수 없는 독특한 존재이다. 물론 ‘나’와 관계를 맺는 ‘너’도 마찬가지로 그 인격 전체가 ‘나’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다. ‘나’와 ‘그것’의 관계는 주체와 객체의 관계로 그 둘은 차등적 관계에 있는 반면, ‘나’와 ‘너’의 관계는 동격의 두 독특한 존재들의 대등관계이다. 그 때의 ‘나’는 진정한 ‘나’다.¹⁴⁾

다소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인문계열의 글쓰기다. 하지만 실제로는 간단한 구조이다. ‘나’가 다른 사람과 비인격적인 관계를 맺었을 때, 내가 단순히 하나의 기능인으로서 다른 사람과 어떤 일을 처리했을 때 나는 그것과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인격 전체로 다른 무엇과 대체될 수 없는 독특한 존재로 만날 때 ‘나와 너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진정한 ‘나’는 ‘나와 너의 관계’에서 실현됨을 뜻한다. 도식화를 거치더라도 결코 복잡하지 않는 진정한 ‘나’는 인격 전체로 만나는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실현된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한편 이공계열은 늘 중심이 되는 학문들이 계산과 공식에 익숙하다보니 무엇인가를 글로서 표현하는데 서툰 것이 사실이다. 거기에다 기술자는 하나의 문제에 하나의 해답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 식의 접근 방식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 생각을 표현한 문장은 단지 외형적인 문장일 뿐 그 의미 전달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즉 수용자와 전달자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적인 매개사항의 부족 때문이다.

14) 손봉호, 『나는 누구인가』, 샘터사(1986), 55쪽.

그동안 각종 자료에 따르면 이공계열 대학생의 글쓰기는 인문계열보다 많이 뒤쳐져 있어 늘 큰 문제로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다행히도 시대의 욕구에 부응해 많은 변화가 있음은 반가운 일이다. 이것은 외국 대학의 좋은 글쓰기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음과 무관하지 않다. 상당수의 대학은 교재 개편을 하여 수업을 하고 있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보다 심도있게 글쓰기 과정을 꾸려나가는 대학이 많다고 한다.

언론에 소개되어 대학의 이런 과정에 영향을 준 외국의 경우를 들어보자. 먼저 MIT대학에는 초급 글쓰기과정에서는 ‘쓰기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소속된 교수와 강사가 30명 정도가 된다. 교수진은 소설가, 에세이작가, 시인, 번역가, 전기 작가, 역사가, 과학자 등 다양하다. 교육 과목은 설명 및 수사학, 창작, 과학기술 쓰기 등 크게 세 분야로 나뉘어진다. 학생들은 현대 공상 과학소설, 과학 에세이, 과학 저널리즘,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수사학 등 36과목 가운데 자신의 구미에 맞는 것을 고를 수 있다고 한다. 쓰기 프로그램과 학과장인 제임스 패러디스 교수는 아예 과학과 기술을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보는 인물로 소개되고 있다.

그는 쓰기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과학기술자에게 쓰기는 지식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중은 물론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보를 습득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또한 요즘 과학기술 논문은 대부분 공저이기 때문에 글쓰기가 하나의 협동과정이다. 특히 요즘에는 자료들이 e메일을 타고 빠르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글쓰기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결국 이 대학이 쓰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쓰기를 통해 명쾌한 사고 능력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연구 능력과도 직결되기 때문일 것이다.

외국의 기업체 또한 이 과정에 적극적이다. 미국의 통신회사 AT&T는 직원들을 위한 글쓰기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한다. 문장

력이 떨어지는 홍보담당 직원들은 사내 홍보대학에 보내 중급, 고급 과정을 듣게 된다. 스캐너, 프린터를 만드는 캐논사도 사내에 ‘성공적인 비즈니스 글쓰기’ 강좌를 연다고 한다. 영업 직원에게 가르치는 핵심 기술 중의 하나가 바로 말과 글을 통한 의사소통으로 보기 때문이다. 아이보리 비누로 유명한 P&G도 신입사원들에게 반드시 ‘메모쓰기’ 듣게 해 적절한 비즈니스 글쓰기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 성공한 기술자 4,000여 명을 대상으로 기술자가 직장에서 필요한 학과목 중 2위는 바로 Technical Writing¹⁵⁾이라는 임재춘의 지적이 아니라도 글쓰기는 개개인의 경쟁력이나 기업의 생존전략을 위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¹⁶⁾

그런데 글의 전달 방식을 방송 매체를 빌린다고 가정해 보자. 이 매체로 전달되는 과학 상식은 그나마 적당한 화면과 배경음악을 배경삼아 시청자들로 하여금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신문이나 잡지에 실리는 과학기사는 다르다. 독자들이 특별하게 호감을 가지지 않으면 단순한 가십거리의 기사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다. 여기에는 전문적인 내용이 동반이 되면서 기사 내용도 어려워진 것이 그 한 몫을 담당한다. 또한 전달력이 문제일 수 있다. 담당기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생겨난 경우도 있다. 결국 신문사 입장에서는 자연과학과 관련된 기사는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다.

그런 가운데 영장류인 원숭이를 주인공으로 하여 과학상식을 쉽게 다룬 서평이 좋은 본보기가 된다.

15) 예전에는 기술보고서, 논문 및 연구보고서를 대상으로 한 ‘이공계 출신 기술자나 과학자의 글쓰기’였지만 요즘에는 거기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모든 실용문’을 통칭하는 용어로 쓰인다.

16) 임재춘, 『한국의 이공계는 글쓰기가 두렵다』, 마이년(2004), 26쪽.

진화의 과정은 ‘점진적 변화’라는 다윈의 말로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하다. 원시적 직립보행을 하면서 인간은 짧은 다리와 긴 팔을 갖게 됐지만, 골격 구조가 변하고 몸집도 큰 현대적인 체격은 갑작스럽게 나타났다. 저자는 “화석 기록 사이의 시간적 공백을 메울 중단 단계를 발견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개체군이 변화하는 유전적 메커니즘이 따로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진화론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너무 단선적이다. 이런 도식을 받아들이게 되면 화석 기록에 남아 있는 무수한 ‘다양성’의 증거들을 무시해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 책은 진화 과정에 초점을 맞추며 직립보행의 역사, 인간과 다른 영장류의 관계, 인간의 미래에 대한 전망 등을 다룬다.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넘나드는 글쓰기가 흥미롭다.¹⁷⁾

다음으로 어느 자연과학 책의 도입부를 예를 들어 글쓰기 과정을 보자. 이 글은 저서의 도입부로서, 책을 쓰는 목적을 밝힌 부분이다. 저자는 현대물리학의 여러 개념과 동양의 철학적 종교적 전통 속에 들어있는 기본 개념들이 유사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목적을 위해 여러 학자의 견해가 인용되고 있음이 보인다.

현대물리학은 인류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 막중한 영향을 끼쳐왔다. 그것은 자연 과학의 기반을 이루고 있으며, 자연과학과 기술 공학의 결합은 행불행 간에 지상의 생존 조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오늘날 원자물리학의 성과를 이용하지 않은 산업은 거의 없을 정도며, 이것이 원자 무기에 이용됨으로써 전세계의 정치 구조에 끼친 영향력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물리학의 영향권은 단순한 기술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그것은 사상과 문화의 영역에까지 확장되어서 우주에 대한, 우주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관념에 일대 수정을 가하게끔 했다.....원자물리학의 제반 발견에 의하여 설명되고 있는 이러한 것은 본질적으로 생소한 것이거나 전대 미문의

17) 박돈규, 「거울 속의 원숭이」 서평, <조선일보> 2006. 11.11

것이거나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은 우리의 문화사 속에서도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것이며, 불교나 힌두 사상 속에서는 더 중요한 중심적 위치를 점했던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옛 지혜의 예증이자 그것의 장려며, 또한 그것을 한층 더 깊고 다듬는 일이다. - 로버트 오펜하이머

원자 이론의 가르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거대한 존재의 드라마에 있어서 관객이며 연기자로서의 우리 입장을 조화시키려 한다면, 우리는 부처나 노자와 같은 사상가들이 일찍이 부딪쳤던 인식론적 문제로 '되돌아가야' 할 것이다. - 닐스 보어

지난 전쟁 이후 이론 물리학에의 일본의 지대한 공헌은 극동의 전통 속에 담긴 철학적 이념과 양자 이론의 철학적 본질 사이의 어떤 관계를 시사하는 점일 것이다. -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내가 동양적 신비주의자라고 지칭할 때 그것은 힌두교와 불교와 도교의 종교적 철학을 뜻한다. 그들은 정묘(精妙)하게 짜여진 수많은 계율과 철학체계를 포용하고 있지만 그들의 세계관의 기본 특성은 다 마찬가지다. 이러한 관점은 동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신비적 성향을 가진 철학에서 어느 정도씩은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물리학이야말로 이제까지 모든 시대와 전통의 신비주의자들이 지녀왔던 관점과 매우 유사한 세계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 프리츠 카프라,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현대물리학은 인류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 막중한 영향을 끼쳐 왔음을 먼저 말한다. 아울러 그것은 생존 조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주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관념에도 일대 수정을 가하게 했음을 보여준다. 이런 여러 개념들은 극동의 종교 철학에 표명된 여러 아이디어들과 놀라운 유사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대물리학이야말로 동양적 신비주의자들이 지녀왔던 관점과 매우 유사한 세계관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라 보

고 있음을 은연중에 내비친다.

결국 독자층의 확보를 위한 지름길은 올바른 포장 작업일지도 모른다. 그 선두에 서는 것이 바른 글쓰기다. 그동안 상투적으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가 한 말’이거나 이름 있는 과학 잡지 이름을 많이 인용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정이 달라졌다. 정보의 빠른 수용은 그들이 무엇이 참되고 그릇된 것인가를 판단 하는데 능숙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관포지교(管鮑之交)의 우정은 요즘 같이 불신의 시대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한한 감동을 준다. 후에 관중이 명제상이 되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친구인 포숙아의 공으로 돌렸다.이러한 우정을 개미에서도 볼 수 있다. 먹이를 발견한 개미들은 페로몬으로 주위의 개미들에게 먹이가 있다는 것을 알린다.제공자 개미가 근육을 움직여 모이주머니에 잇는 액체 상태의 먹이를 토한 후 상대방의 입에 넣어 준다. 맛있는 음식을 자신의 위로 보내지 않고 어떻게 남을 위해 임시 저장소에 저장시킬 수 있을까. 그야말로 이타적, 헌신적인 동료애다. 개미학자들은 개미의 이러한 불가사의한 행동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정확한 기작(機作)에 대하여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지금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다. 박경리의 소설 「불신 시대」에서 주인공 진영은 전쟁에서 남편을, 의사의 무책임으로 아들을 차례로 잃고 살려고 발버둥치지만 가는 곳마다 배신감은 진영을 절망으로 이끌고 간다. 이 주인공이 바로 우리의 이웃인 것이다. 개미들이 인간의 이러한 이진투구의 삶을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 나보다 동료를 먼저 생각하는 개미의 진정한 우정이 부럽다.¹⁸⁾

이 글은 지식의 전달을 목적으로 한 칼럼은 아니다. 개미들의 생활을 바탕으로 인간의 우정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글이다. 먼저 우정에 관련된 사자성어를 도입부에 문제제기 형태로 내세우면서

18) 김병진, 「개미들도 우정이 있다」, <중앙일보> 2005.4.22.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것은 불신시대에 사는 일반 독자들에게 쉽게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이후 단락을 바꿔 재미들이 어떻게 그들의 동료들과 공생하는 가를 설명한다. 물론 곤충학을 전공한 학자의 입장이기에 전문 용어도 있었지만 그나마 최대한 쉽게 풀이하여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박경리의 소설 「불신 시대」를 예로 들면서 메말라가는 친구간이나 이웃의 무관심과 욕심에 대해 이야기한다. 자연 속에서의 작은 미물을 통해 인간의 잘못된 행동에 경종을 울려주려 했던 글쓴이의 의도는 충분히 잘 드러나는 글이다.

IV. 새로운 정보탐색과 개인 가치의 상승

현대 사회는 정보사회다.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농업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발전을 거듭했다. 여기서 ‘정보사회’라 하면 컴퓨터를 통한 정보의 처리나 가공, 흐름만을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것에는 정보의 생산이라는 측면도 있다. 이런 정보들이 고급의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데 그들 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글쓰기이기도 하다.

자외든 타외든 우리는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다. 어린 아이조차도 키보드 하나로 지식을 통제하는 시대다. 누가 더 그것을 창의적으로 조합하고, 디자인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과정들은 비판력 보다는 단순한 수용성만을 기를 뿐이다. 부분적이거나 글을 읽고 그것에 밀줄 그으며 다시 하나의 문장으로 사고를 재배열한다는 것이 오히려 사치처럼 여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과장할 생각은 없지만 유사 이래 최근처럼 우리 국민이 글쓰기 열풍에 휩싸인 적이 없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선 대학 논술시험이 불러온 폭풍이 먼저 떠오르고, 인터넷 공간에서의 글쓰기 - 블로그 꾸미기, 댓글, 이메일, 메신저 형태 - 와 소소하게는 모바일 문자메시지에 이르기까지 이제 글을 잘 써야 할 이유는 흘러넘치고 있다.¹⁹⁾

그런데 글 잘쓰는 방법 중에서 대부분 학생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개요작성이다. 대체적으로 학생들은 주제의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주제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기 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주제 전체의 모습을 요리해보겠다는 마인드가 없는 것 같다.²⁰⁾ 개요를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문제의 전체 상황을 관찰할 수 있는 시각을 기르게 된다. 할 말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논점을 잃고 무질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비유를 해보건대 개요작성은 숲을 보고 그 숲을 구성하는 세세한 나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오로지 한 가지 의견에만 논지를 강화하고 근거를 가져다 붙이는 편협한 글쓰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모양을 먼저 파악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구성한다면 좁은 시각 또한 확장이 가능할 것이다.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서비스금융보험·부동산 등에서 그들을 채용할 때 글쓰기를 본다는 비율이 80% 이상으로 나타난다. 한 응답자는 입사지원서의 글쓰기 실력이 빈약하면 면접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며 글쓰기 실력이 부족하면 승진 기회도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한다. 입사의 경쟁이 끝나고 매년 초 언론에 오르내리는 인사담당자의 채용과정의 소감을 들어보면 그 내용은 공통적이다. 글쓰기 능력은 비즈니스의 기본이다. 요즘처럼 엄청난 속도의 기술이 발달하는 환경에서는 압축적이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19) 정은숙, 「‘상상의 공간에 집짓기’ 맘껏 즐겨라, <한겨레>, 2007.1.21

20) 강준만, 『대학생 글쓰기 특강』, 인물과 사상사(2005), 33쪽.

일관되게 내용을 전달하는 능력이 점점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확한 글쓰기 능력은 곧 명확한 사고능력을 의미한다고 경영자들은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적인 거부인 빌게이츠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하버드대의 졸업장도 아니고, 나의 조국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내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작은 도서관이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 정보기술의 거장인 본인조차도 결코 컴퓨터가 책을 대체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요즘의 최고경영자들을 소개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바로 책과의 연관성을 들고 있다.

흔히들 좋은 글이란 원래부터 타고난 쓰기의 능력으로 무조건 글만 쓰면 되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쓰기는 천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훈련에서 나오는 경우가 더 많다. 이것은 유명 작가의 습작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이다. 그 훈련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글읽기다.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가정할 때 완성된 외형이 글이라면 그 속에 재료로 들어가는 벽돌, 나무, 시멘트, 철골 등이 책읽기에 해당된다. 글감(책읽기)이 없다면 글쓰기는 불가능하다.

이런 책읽기를 통해 길러진 상상력, 응용력, 창의력은 바로 글쓰기 과정의 핵심이 된다. 이 능력은 어느덧 사회생활의 기본 도구가 되자 개인별 능력 차이를 견주는 최고의 변별력 잣대가 된다. 상상력도 문자 텍스트로 서술이 되었을 때 열개가 짜여지고 생명력을 얻는다. 술한 이미지들이 명멸하는 시대에 이미지가 호흡이 긴 생명력을 가지려면 바로 문자적 구성력과 기승전결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크게 관중몰이를 한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 「반지의 제왕」을 보면 첨단 디지털 기술에 의한 특수효과가 놀라운 기법 혁신을 보여준다. 하지만 원작자 조엔 롤링과 J R 톨킨의 서사적 상상력과 문자 텍스트가 없었다면 영화의 웅장한 감동과 변화무쌍함은 없었을 것이다. 결국 영상이미지는 문자문화를 통해서 풍요로

워진다.

신화가 다루는 세계와 생물학이 다루는 세계는 모두 사람을 향하고 있어요. 게다가 신화는 글쓰기 재료로도 유용해요. 우선 재미있죠. 딱딱한 과학 이야기를 쉽게 풀어 쓰는 데도 신화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21)

위의 예문의 경우 흔히 인문학과 자연과학은 이질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아름답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신화와 생물학의 공통된 관심사였으며, 사회학적 관심의 대상이기도 하다.

글을 써서 성공한 사람들, 그들이 가진 것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다. 글로 사고하고 글로 표현하는 방법을 깨우치게 될 때, 우리에게 훨씬 넓은 가능성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22) 결국 이것은 인간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글쓰기의 출발점에 있는 중등과정의 학생을 위해 적어놓은 안도현의 글이 여기서 새롭게 느껴진다.

아들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공부, 가장 확실한 공부가 글쓰기라는 것을 너는 잊지 말길 바란다. 글을 쓰는 순간 머릿 속의 지식과 지혜는 뼈와 살이 있는 육체가 된다. 피가 도는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생명체가 된다. 그러니 논술을 대비해서 책과 신문을 읽는다는 생각 따위는 일치감치 버리도록 하여라. 글쓰기를 진학과 취업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한 ‘논술광풍’의 기세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아들아, 너는 부디 글을 잘 쓰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 미래에 작가나 전문적인 집필가가 되라는 말이 아니다. 논술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글쓰기보다 인생을 즐기고 혁신하는 방법의 하나로 글쓰기를 염두에 두라는 말이다.23)

21) 김태훈, 「‘하리하라의 생물학 카페’를 쓴 이은희씨」, <조선일보>, 2002.7.27
22) 이영미, 「글 잘 써야 성공한다」, 『글쓰기의 힘』,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5), 55쪽.
23) 안도현, 「글쓰기는 ‘논술’이 아니다」, <경향신문> 2007.4.5

그러므로 대학에서의 글쓰기는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일회성이 될 수 없다. 여기서 일회성이란 졸업을 위한 학점 취득의 한 요소를 말한다. 대학에서 글을 많이 써봄으로 인해서 사회진출을 위한 튼튼한 발판이 마련된다. 좀 과장한다면 다른 이들보다 앞설 수 있는 충분한 기초학문이 된다. 사회 진출 이후 지식을 쌓고 글쓰기 능력을 키우겠다고 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그런 소양은 대학시절에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는 바야흐로 고령화시대에 살고 있다. …… 만일 평생 갖게 될 직업을 모두 예측할 수만 있다면 대학에 다니는 동안 그 모든 직업에 필요한 전공 공부들을 다 해둘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현명한 방법도 아니다. 수십 년 후에 써먹을 전공을 지금 준비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하나 밖에 없다. 대학 시절 기초학문, 즉 인문학과 과학의 기반을 확실하게 닦아 놓으면 언제 어떤 직업으로 옮겨 타더라도 변신이 가능하다. 진정한 수학능력은 바로 기초학문에서 길러진다. 세계적인 명문 대학들은 이제 전공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인문학 과정과 자연과학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다. 인문학적 소양은 모든 학문과 인생사에 필요한 기본 중의 기본이다. 24)

대학의 학과 과정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반가운 현상이다. 국문과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 사회는 다양한 직업 찾기를 학생들에게 요구하고 있지만 이런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국문과 졸업생은 그동안 학자나 교직, 그리고 언론사나 잡지사의 기자로의 진출을 고집했었다. 그러나 기존의 이런 진로는 후배들로부터 원성을 사기에 충분하다.

현재의 상당수 학생들은 민담·민요·사소설 등 전통적인 국문학 영역을 인문학적 교양으로서가 아니라 영화·게임·애니메이

24) 최재천, 「통합형 논술에도 죽집게 과외를」, <조선일보> 2007.3.3

선 등의 산업과 연계된 문화콘텐츠를 배우고 싶어한다.²⁵⁾ 신문·방송·인터넷 등 미디어는 물론, 최근 산업규모가 커지고 있는 이벤트·공연 기획 분야로의 진출은 문화적인 대세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이런 문화콘텐츠학은 뉴미디어 관련 산업에서 인문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기획·시나리오·마케팅 방법을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요구된다.²⁶⁾

이제 학문의 고립과 관련된 글쓰기와 홀로서기는 더 이상 세계적인 흐름이 아니다. 과학자와 사상가들의 모임인 에지재단의 설립자 존 브룩만은 2003년 『새로운 인문주의자들(The New Humanist)』이란 책을 냈다. 오늘날에는 1950년대 방식으로 프로이트·마르크스·모더니즘 따위를 교육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기에 충분한 자질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이 책의 중심 내용이다.

정보화의 진전은 학문 간 협업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가 주도한 ‘사회 네트워크와 사이버 인프라(SNAC)’는 세계 인문학자와 관련 학자들이 서로 필요한 자료와 지식을 유통하는 공간이다. 그 유통의 매개역할로 글쓰기는 중요성을 갖는다. 이런 의미에서 장영희의 지적은 설득력을 가진다.

세 명의 늙은 공주(문학, 사학, 철학)가 세운 나라를 이제는 세 명의

25) 문화콘텐츠란 문화와 콘텐츠의 합성어이다. 문화를 인간이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패턴이라고 할 때, 콘텐츠란 그러한 내용물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이 용어는 원래 문서, 연설 등의 내용이나 목차, 요지 등을 뜻하는 말이었다. 21세기에 들어서 콘텐츠란 ‘유무선의 전기 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해서 처리·유통하는 각종 정보 또는 그 내용물을 일컫는 개념’으로 널리 쓰인다.

김승중 외, 『창의적 발상과 문화콘텐츠 작법』, 글누림, 2006, 14쪽.

26) 이한수, 「어! 분명 국문과인데...영화게임을 배우네」, <조선일보> 2005. 7.9

왕자(경영, 과학, 기계공학)가 통치하고 있다는 말이 있다. 늙은 공주들을 무조건 늙었다고 쫓아낼게 아니라 젊은 왕자들이 그들에게서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법,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야말로 진정한 미래가 있는 좋은 나라이다.²⁷⁾

글쓰기에 대한 막연한 부담을 갖고 있는 대학생들이 많기에 브랜다 유랜드는 다음과 같은 말로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준다. “세익스피어도 맞춤법에 맞는 글을 쓰지는 않았다. 하물며 당신은 세익스피어가 아니다. 자유롭게, 신나게 글을 써라.”²⁸⁾ 초보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나 능숙한 경지에 이르기까지는 이런 단계를 경험하는 것이 옳다. 이것은 누구나가 처음부터 명문장을 쓸 수 없음을 뜻한다. 굳이 잘 쓰지 않아도 자신의 내면의 표출, 자아 성찰 더 나아가 다른 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수단이 바로 글쓰기이다.

V. 나가는 글

글쓰기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학은 물론이고 초·중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상품화하면서 온갖 것들이 학생들의 눈을 현혹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글쓰기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글쓰기는 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 나타내는 표현과정이라는 점에서 개인적 행위이지만 글쓴이와 독자 사이의 사회적 의사소통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행위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것은 대상에 대

27) 장영희, 「세 명의 공주, 세 명의 왕자」, <동아일보> 2007.4.2

28) 이경숙 역, 『참을 수 없는 글쓰기의 유혹』, 다른 생각(2004), 19쪽.

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지적활동이면서 다양한 체험 속에서 개인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기 성찰적 활동이기도 하다.

인문학의 보고인 동서양 고전들도 읽을 만한 번역본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플라톤의 「국가」 완역본이 나온 게 불과 얼마 전의 일이다. 세르반테스 「돈키호테」도 최근에 완역본이 나왔다. 일반 독자가 접하는 서양 고전 번역본들은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대목이 숱하다. 부처님의 말씀을 부처님 당대의 언어로 기록한 팔리어 불전을 우리 말로 옮기기 시작한 것도 얼마 되지 않는다. 유감스럽게도 유럽과 일본에선 수십 년 전에 이뤄졌던 일이다.

옛 성현의 생각을 모아놓은 각종 고전들의 번역 작업이 그들의 정신이나 핵심사상을 몰라서 지금까지 소개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흠어진 선인들의 주옥같은 편린들을 모아서 그것을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을 것이다.

글을 쓴다는 것은 곧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한 방법이다. 이 말은 곧 아무런 생각 없이 글을 쓸 수 없다는 사실을 역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아울러 글을 쓴다는 것은 곧 사고의 지속과 표현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이것은 사고의 깊이를 배가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글쓰기는 작가를 꿈꾸는 사람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사회적 활동을 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일이다. 어떤 단체에서 앞서가는 사람은 보통의 사람보다 글쓰기의 양상이 다르다고 한다. 곧 이 능력의 함양은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필수적 습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기발한 문체를 꿈꿀 필요는 없다. 무엇보다도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책임기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글의 형식에 익숙해지면 글을 쓸 때 이전보다 편하

게 쓸 수 있다. 그리고 평소 책이나 신문을 읽으면서 발견한 중요한 내용을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밑줄 긋기도 좋다. 저자의 의도는 무엇이며 주제문은 어느 부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

결국 대학생의 글쓰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양 있는 지식인으로서의 삶을 완성하는데 있다. 지식인이란 전문 지식을 인생이나 우주와 연결시켜 보편타당한 가치로 말을 하거나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자체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다. 이것을 통해 삶의 의미를 구성하고 창조하는 일이라면 글쓰기는 자신의 삶을 완성해 가는 과정으로서의 창조적 행위일 것이다.

주제어 : 글쓰기, 말하기, 정보 사회, 글쓰기 방식, 사고의 결과물, 지식인

참고문헌

- 강준만, 『대학생 글쓰기 특강』, 인물과 사상사, 2005.
교재편찬위원회 편, 『창의적 사고와 글쓰기』, 부산대학교출판부, 2005.
국어교육위원회, 『글쓰기와 삶』, 연세대출판부, 1992.
국어와 문학 편찬위원회, 『현대인을 위한 글쓰기 기술』, 도서출판 동인, 2005.
김동희 옮김, 『교양이 되기 위한 즐거운 글쓰기』, 들녘, 2004.
김승중 외, 『창의적 발상과 문화콘텐츠 작법』, 글누림, 2006.
김재만, 『지식인 그들은 다 어디 있는가』, 푸른사상사, 2001.
김해식, 『글쓰기 소프트』, 새길, 1993.
사이토 다카시, 『원고지 10장을 쓰는 힘』, 루비박스, 2005.
손봉호, 『나는 누구인가』, 샘터사, 1986.
안정효, 『안정효의 글쓰기 만보』, 모멘토, 2006.

- 이경숙 역, 『참을 수 없는 글쓰기의 유혹』, 다른 생각, 2004.
이지호, 『글쓰기와 글쓰기 교육』, 서울대출판부, 2001.
임재춘, 『한국의 이공계는 글쓰기가 두렵다』, 마이넨, 2004.
조재승 외, 『글쓰기와 자기 표현』, 한신대학교출판부, 2005.
최현섭 외, 『삶과 글쓰기』, 삼영사, 2003.
필리스 크립, 『작문 신공』, 효형출판, 2003.
한기호, 『글쓰기의 힘』,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5.
황소용, 『바른 글 좋은 글』, 랜덤하우스중앙, 2005.
* 기타 기초 자료 - 경향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등

The Correct Writing Strategy for College Students

Shim, Young-Deuk

Modern society is information society. Human beings have continued to develop from agricultural society to industrial society and from industrial society to information society. 'Information society' is often likely to be recognized as the process or flow of information through computers. But this information society has the aspect of information production. In order for this information to be high-level information, it needs to be through a certain process, and writing takes an important part in this process.

The demands of this age for writing are presented in a variety of aspects. Such demands are shown in colleges, much more elementary, junior high and high schools. It is clear that writing is not mastered in a day. Writing is an individual action in that it is an expression process of individual thoughts and feelings, but it is a social action in that it is a social communication between a writer and readers. Therefore, it is an intellectual behavior in the sense that it constitutes meanings through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objects.

Writing is a way of expressing one's own opinions or thoughts. That is, no one can write with no thoughts. In general, speaking and writing is an outcome of thinking process. Speaking involves correctiveness, which is cultivated through writing. There can be a question on the relations between these two, but mutual communication is necessary. If thoughts are not properly arranged, utterance is out of order. And its core can be omitted. Therefore, to systemize thoughts properly is followed by proper writing.

This study, in this respect, examined college students' necessity for writing. To learn how to write logically is the same as to learn how to approach the subject systematically. Each academical area has a unique way of using the knowledge and has different ways of writing. In this sense, the ultimate purpose of writing is in completing a life as a cultured intellectual. A true

intellectual is one who speaks or writes specialized knowledge as universal values in relations of life with universe.

Key Words : Writing, Speaking, information society, ways of writing, outcome of thinking, knowledge

심영덕
영남대학교 국문과 강사
주소: 대구시 수성구 매호동 청구하이츠 101동 1503호
전화번호: 011-9363-7099
전자우편: ydshim@dreamwiz.com

이 논문은	2007년	10월	30일	투고하여
	2007년	12월	15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7년	12월	30일	간행함